

지난 1월 국내 첫교환교수로
하버드法大에 부임, 오는 6월까지

한국법을 강의하는 서울法大 宋相

현교수의 「하버드 통신」을 연재할

니다. 매주 화요일 본면에 실리는
이칼럼은 하버드생활에서 보고느낀
점과 통해 대학교육의 진정한 의미
를 알개울 것입니다. <편집자註>

하버드 法大에 교수로
임명을 받아 1월 하순부터
불학기강의를 하기 위하여
부임하면서 과연 하버드
대학이 한국 사람에게 주
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
각해보았다. 얼마 전부터
본인이나 자녀를 하버드
대학에 입학할수 있도록
힘써 줄수 없겠느냐는 부
탁을 심심치 않게 냥으면
서 헛되이 일하지 않

회의원선거에라도 출마해
서 당선되려면 사람들이
모두 알아주는 하버드를
꼭 다녀와야 되겠다는 것
이 그 이유였다. 과연 이
유명한 대학에 잘만이라
도 다녀오거나 어려운한
관계라도 맴은 일이 있다

안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
이들에게 선진학문을 가
르쳐주었고 각계의 지도
적 중경인사들에게 정신
적 양식을 다시 충전할
기회를 제공하였다.
그러나 하버드에만 매

달리는 이유가 할국식 일
류의식과 차별의식을 우
리와 전연 사회적 구조와
기준이 다른 미국에 그대
로 적용하려는데서 오는



하버드대학의 의미

宋相現

<서울法大教授>



있기 때문이다. 왜 하필이
면 하버드에 들어가기를
고집하는가를 물었더니 그
이상의 대답이 의외였다.
설거 쪽에 여기저기 불
은 일후보자 별보를 들여
다보고었던 학우민이 『вел
로 아는 사람도, 마땅한 사
람도 없는데 마침 하버드
을 찍어주어야겠다고
세운자가 있느니 이 사람
한동정을 들고 다음에 국
말을 한다는 경력을 내

고해서 그것이 굉장히
내세울 만한 일이고 사회
에서 특별히 우대받을
만한 일인가.
3백 50여년의 긴 역사
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
비교하는 단체 조직인 일
류의식이나 타고나는
자동차의 크기로 사람의
지위를 속단하는 일이나
살고 있는 아파트의 크기
에 따라서 차를 두어
대접하는 비뚤어진 의식
구조가 외국의 학교를 지
원하는데까지 확장 적용되

결과일까 두렵다.
하버드를 서울대학에
비교하는 단체 조직인 일
류의식이나 타고나는
자동차의 크기로 사람의
지위를 속단하는 일이나
살고 있는 아파트의 크기
에 따라서 차를 두어
대접하는 비뚤어진 의식
구조가 외국의 학교를 지
원하는데까지 확장 적용되

줄겠다.

제발 없었으면